

## 국가통합인증마크(㉞), 전세계 178개국에서 보호된다

**특** 허청에 따르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비롯해 국가 인증마크 38건 및 대한민국의 국가기장 3건 등 총 41건이 전 세계 178개국에서 국제적으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09.7월부터 도입될 지식경제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 ㉞<sup>1)</sup>, 군디자인 마크 ㉟ 등 7개 부처의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신제품 인증마크, 농수산물 인증마크 등 38건 및 나라문장 ㉡, 청와대 문장 ㉢ 등 국가기장이 3건이다.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보호요청한 국가기장 등은 태극기 등 21건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보호 요청한 41건을 합치면 60여 건이 넘는다.

※ 주요국 등록현황('09.3월 이전): 독일 128건, 미국 117건, 영국 38건을 등록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프랑스, 일본, 중국, 북한은 각 2건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라 '파리협약 동맹국은 동맹국의 문장, 기, 기타의 국가기장 및 동맹국이 채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와 인장과 이러한 것들의 모방인 것은 상표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금지할 것에 합의한다' 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 기장 : 3건 ( 정부 문장, 청와대 문장 등)



나라문장

청와대문장

정부문장

1) 국가통합인증마크(㉞) : 법정 강제인증마크인 검자마크(㉟) 등 13개를 ㉞ 마크로 단일화하여 '09.7월부터 시행예정

\* ㉞ 마크(KC: Korea Certification) : K와 C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국제적 통합을 강조한 인증마크임.

## 네이버에서 우리나라 전통지식 쉽게 찾는다

한의학 전통지식 및 47종의 관련 학술지를 무료로 열람

**우** 리 선조들이 남긴 한의학 분야 고문헌에서 발췌한 전통지식과 이들 전통지식과 관련된 학술지를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전통지식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NHN(주) (대표이사 사장 김상헌)와 전통지식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NHN의 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전통지식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티즌은 동의보감 등 고문헌에 기록된 병의 증상에 대한 기록, 이에 효능이 있는 한방약재 및 전통처방으로 구성된 3만 3,000여 건의 전통지식뿐만 아니라, 이들 전통지식과 관련된 우리나라 주요 학술지 47종에 담겨진 2만 5,000여 건의 논문들을 네이버의 '사전' 또는 '전문정보'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외국기업, 한국시장에서의 브랜드 선점경쟁 치열

작년 한국에 출원된 마드리드 국제상표 6.1% 증가

**글** 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시장 진출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브랜드 보호활동이 여전히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2008국제상표출원 통계'를 인용, 작년 한해 외국 출원인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에 출원한 상표는 총 9천539건으로 '07년(8천988건)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 상호 간에 편리하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각각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다. (PCT 국제특허출원제도와 유사)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4월에 가입했고 현재 84개 회원국이 가입 중이다.

### ▲ 어떤 국가에 많이 출원됐나

국가별 순위는 우리나라가 '06~'07년에 이어 3년 연속 1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1만 7천829건으로 4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러시아(1만 6천768건), 미국(1만 5천715건), 스위스(1만 4천9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 ▲ 정보통신 등 시장 선도분야에 상표출원 몰려

작년에 외국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상표권 취득에 주력한 분야는 정보통신, 컴퓨터, 의류 및 제약관련 업종이었다. 이 4개 분야는 '08년 마드리드 출원 등록상표 전체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26.8%를 차지했다. 현재 시장성숙도가 높은 선도분야에서 외국기업의 브랜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계획 마련키로

2012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 육성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서 승리하고, 미래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기업의 강한 지식재산권 획득지원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지난 4월 17일, 특허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 획득전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이란?

제품에 대한 시각을 ‘부품결합체’에서 ‘특허복합체’로 전환하여 연구개발의 최종 목적을 ‘돈되는 강한 특허’ 획득 및 선점에 두는 것으로, 시장의 변화와 기술개발 및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및 이를 획득하는 전략(국가 R&D, 민간기업 자체 R&D, 특허매입, 제3기업과의 기술제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 핵심전략으로 3대 추진방안 제시

이번 계획은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를 육성하고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3대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은 특허, 디자인 등 강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인 「일류품목」을 1개 이상 구비한 기업을 의미

첫째,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은 기업·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태양전지, 그린카, LED 등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및 기술획득전략을 제공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기업, 대학 및 공공(연) 등에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전파하여 기업 등이 스스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수립·활용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 지원」은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R&D 현장에 ‘지식재산 전략전문가’를 파견, R&D 기획·수행·완료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여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한다.

셋째,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은 표준화가 중요한 IT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적용하여 표준과 R&D를 연계하여 표준특허 창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 상표심사의 하이패스 시대, 드디어 개막

신속한 권리화 지원을 위한 상표우선심사제도 4월 1일 시행

**앞**으로 통상적인 심사보다 최대 4-5개월 빠른 상표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를 시행했다.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대략 2개월 내외에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1차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6~7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나 기업 혹은 상표 사용을 준비 중인 자는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설명서와 함께 소정의 우선심사신청료(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를납부하면 된다.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원상표에 대한 분쟁 조기해결 및 사용 중인 상표의 신속한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넷, 중앙아시아 몽골에 간다

특허청, 몽골 특허정보화 사업 참여 급물살

**한**국의 특허정보화시스템인 '특허넷'의 중앙아시아 몽골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 하반기에 몽골 정부의 특허정보화 사업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넷'을 기본 모델로 한 특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몽골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몽골정부의 특허정보화 사업은 우리나라 시스템통합 사업자(SI 업체)의 참여로 진행되며, 1단계로 240만 불 규모의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특허 검색과 전자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2단계로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통합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몽골정부의 특허정보화 사업 성공을 위해 공적 원조자금의 확보 논의에서부터 특허넷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아끼지 않고 있어 몽골특허청의 협력 파트너로 신뢰가 높아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 참여가능성이 더 한층 높은 상황이다.

제공 특허청